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3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행 동지 십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순달의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다시 듣고 싶은 설교 ㉓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롬 12:1-2)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교리적 부분과 실천적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리적 부분이 실천적 부분과 무관하다는 의미로 이같이 분류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교리는 실천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은 교리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롬 12장-16장에서 바울은 앞에서 가르친 실천적 교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칭의, 은혜, 선택, 구원 등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친 모든 교리는 결국 기독교인의 실천적 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근본 논리입니다.



고 이종운 원로목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3).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책임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사역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1. 죽으면 살리라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란 모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매우 역설적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으라고 합니다.(롬 6:1-4, 갈 2:20, 5:24, 빌 3:10, 골 3:3-5, 딤후 2:11)

롬 12장에서 바울이 제시한 크리스천 삶의 제 1 원리는 희생입니다. 바울 시대의 희생은 짐승을 잡아 바치는 희생제물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그는 죽게 되고,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사는 역설적 진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2. 값으로 산 사람답게 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1절).

이 같은 희생은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전7:25)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묘사한 중심 단어는 ‘구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명예나 부 또는 권력과 쾌락을 위해 마치 예서가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듯이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고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 원리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과거에 대하여는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산 자가 아닙니다.(롬 6:2)

3.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 당시 희생제물은 항상 죽어서 바쳤습니다. 제사장에게 짐승을 끌고 와서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고백하게 한 후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롬 6:23)는 말씀과 같이 죄인의 구원은 이같이 대신 죽는 것 없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짐승이 대신 희생된 것입니다. 그 짐승이 죽으므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바쳐야 할 제물을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산 제물을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칠 생명은 동물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5:15)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새 생명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눈과 귀를 바쳐야 합니다. 혀를 바쳐야 합니다. 손과 발을 바쳐야 합니다.

“금홍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엡 2:4-7)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크신 자비에 감격한 자마다 하나님께 몸을 드려 헌신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로 고 이종운원로목사님의 다시 듣고 싶은 설교 시리즈를 마칩니다.)

지난 30여 년간 말씀과 기도로 서울교회를 섬기신 고 이종운원로목사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가 맞이 한 첫 번째 위기, 영아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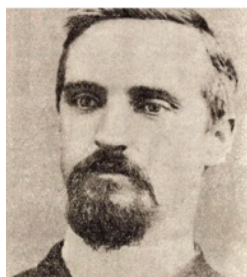


손달익 위임목사

영아소동은 조선인의 무지에 기인한 두려움과 생활고에서 비롯된 불만이 가짜 뉴스와 만나 폭발한 것

.....

영아소동은 한국 기독교가 만난 최초의 위기이자 새로운 선교 지역에서 거쳐야만 할 시험 무대이기도 했다



존 헤론
(John W. Heron)



위안스카이
(원세개·袁世凱)



윌리엄 스크랜턴
(William Benton Scranton)



언더우드
(Horace Grant Underwood)



릴리어스 호튼
(Lillias Horton)

1888년 6월 10일 경 서울에서 흉흉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서양인들이 어린이를 유괴하여 잡아먹는다는 소문이었다. 당시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이 어린이 인신매매에 관련되어 있었지만 조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몇 년 전부터 부쩍 늘어난 서양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소문은 점점 다양한 이야기들로 번져갔다. '눈알을 빼 사진기의 렌즈를 만든다. 성찬식에 쓸 피를 뽑는다. 외국에 팔아넘긴다. 남자아이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다. 여자 아이들의 가슴을 절단해 우유를 만든다' 등 끔찍한 소문이 줄지어 생겨났다. 이미 어린이의 잔혹하게 훼손된 시신이 몇 차례 발견된 데다, 프랑스 공사관에서 일하던 오봉엽이라는 사람이 외국인들이 아이들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소문은 점점 사실로 굳어졌다.

조선인들의 분노는 곧 폭동으로 이어졌다. 제중원, 배재학당, 이화학당, 언더우드 고아원 등 선교사들의 학교와 병원이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주요 장소로 지목되었다. 선교사들은 살해 위협을 받았고 선교사들을 돕고 있던 조선인들은 공격을 받았다. 이틀 사이에 10명의 조선인이 살해당하자 서양 각국 공사관들은 조선 정부에 항의하면서 이를 진정시키는 포고를 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포고는 '지금 조사 중이며 만약 의심스러운 사람을 보면 이들을 뒤 쫓아 거처를 당국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에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폭도들이 정동의 외국인 거주지를 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해지자 미국이 먼저 제물포에 있던 해병대를 서울로 불러들였고 이틀 날 프랑스와 러시아도 해병을 소환했다. 미군 해병대가 제물포에서 보도로 이동해 12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한 것을 보면 당시 서양의 공사관들이 이 일을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군대가 서울에 진주하자 고종은 서양인들은 소문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소요에 가담한 자를 엄벌할 것이라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이후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해 6월 말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소요가 잦아들었다.

이 한 달에 걸친 사태를 흔히 영아 소동(Baby Riot)이라 부른다. 이

일을 빚어낸 것은 조선인의 무지였다. 캔에 저장된 분유의 존재를 몰랐던 조선인은 젓소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서양인들이 매일 우유를 마시는 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사진기 렌즈가 무엇인지, 성찬식에 사용되는 붉은 음료는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그런 그들이 사진기에는 눈알이 달려 있고 성찬식의 붉은 음료는 피라는 소문에 혹하는 것도 완전한 무리는 아니었다.

당시 조선인의 불만이 누적된 것도 중요한 요소였다. 헤론 선교사는 1889년 본국에 보낸 편지에서 '조선인들이 서양인이 조선에 살게 된 이후 쌀값과 옷값이 올랐고 화폐 가치는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떨어져 살기 힘들어졌다며 서양인을 미워한다'고 기술했다. 결국 영아소동은 조선인의 무지에 기인한 두려움과 생활고에서 비롯된 불만이 가짜 뉴스와 만나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배후 없이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확대 재생산되는 않는다. 현재까지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이 배후는 크게 두 가지 설로 정리되고 있다. 하나는 서양의 문물과 사상이 유입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조선의 수구세력이 이를 막고자 소문을 유포했다는 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청나라의 주차관 위안스카이(원세개·袁世凱)가 대규모의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조선 정부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를 틈타 청나라의 군대를 서울에 진주할 계획으로 소문을 퍼트렸다는 설이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확실하기 어렵지만 기존에는 전자의 설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후자의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아소동은 한국 기독교가 만난 최초의 위기이자 새로운 선교 지역에서 거쳐야만 할 시험 무대이기도 했다. 스크랜턴은 1889년의 보고서에서 '우리는 가까스로 민중 시험기를 지났고 민중은 암암리에 우리를 믿기 시작했다'고 기뻐했다. 언더우드도 아마 무척 기뻐할 것이다. 그는 영아소동 당시 여성 의료선교사인 릴리어스 호튼의 출퇴근길 호위를 자처했는데 이것이 사랑의 계기가 되어 후일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오늘은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마 21:1-11, 막 11:1-10, 눅 19:28-40, 요 12:12-19)을 기념하는 날로서, 날짜는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오늘, 4월 2일이 종려주일이며, 이 날부터 7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palm)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며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무리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일이 종려주일과 관련되기 이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지원자주일(Dominica Competentium)'이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지원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례지원자들은 이 주일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조와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날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2023 첫 번째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부장:노제현 장로, 지도교역자:박미라 전도사)는 지난 주 3월 26일 주일 2부 예배 후 802호에서 2023년 1분기(1월-3월) 교육 수료자를 환영하는 새가족환영회를 가졌다.

노제현 장로의 소개로 순서를 시작하였고 손달의 목사는 환영의 인사로 "새가족 가운데 타 종교에 몸담았거나 종교가 없었거나 다른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든 신앙의 터전이 바뀌는 것이나 새로운 교회에 몸담는다는 것은 나무를 옮겨 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은 초기에 잘 자라지 못하거나 몸살을 앓는 것처럼 적응기간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결정하시고 저희 서울교회와 함께 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와 함께 하시는 앞길이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신앙이 자라 꽃피는 계절이 되어 신앙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단순한 새가족

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좋은 모임 만들어 주신 새가족부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다.

노제현 장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함으로 같이 식구(食口) 함께 밥을 먹는 사이 즉, 가족이 된 것입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였다.

또한 환영회 시간 중에 수료자들과 수료자들의 소속 교구장, 지도교역자, 다락방장들이 참석하여 다락방에 연계하여 줌으로 서울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 준비해 주신 새가족부에 감사드리며 수료자들이 앞으로 서울교회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생활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은경 집사(편집부)



열린프로그램

기타반을 마치고



유성결 성도
(청년부)

찬양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는 악기 기타!!

전도할 때 함께하는 악기 기타!!

둘러앉아 흥겹게 찬양할 때 필수 악기 기타!!

찬양팀 하면 떠오르는 대표 악기 기타!!

제가 생각하는 기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악기는 다르지만



기타를 기본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기타 반주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기타반 강사이신 김상윤 선생님께서 매주 토요일 코드 잡는 법과 줄을 치는 방법들을 개인 레슨해 주시고, 동영상도 찍어 단독방에

올려주셔서 일주일동안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영상도 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하면 실력이 향상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이 통기타반 운영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클래스는 매주 토요일 11시에, 교회학교 학생들 대상의 통기타반은 매주 주일 1시 50분에 운영되고 있으니, 기타 연주로 찬양드리고 싶으신 분들께서 용기를 내어 자원하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학기 기타반 강좌 때 많이 오십시오.



청년부 리더 양육 훈련 - 카이로스



장윤기 안수집사
(청년부 부장)

서울교회 청년부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고 양육하기 위한 부서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 성인이라는 이유로 자치회적인 성격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양육보다는 봉사과 헌신이 강조되었고 현대사회의 청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타 교회의 과정을 등록해서 수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을거라 생각했지만, 청년들은 설문을 통해 교회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행"이나 "야유회"가 아닌 "리더쉽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을 꼽을 정도로 양육은 청년부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부에서는 전반기에 "카이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리더십 훈련을 3월 19일부터 9주간 진행합니다. 이 훈련은 청년들이 선교의 사명과 비전을 품고 지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서울교회의 훌륭한 리더로 부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선교와 해외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예비하신 큰 뜻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육부서, 찬양대, 안내위원, 헌금위원 등으로 봉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오고 주중에는 직장 학교로 시간 내기가 어려워 여러 고민 끝에 주일 밤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남아 배우고 소그룹으로 나눠 토의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어지는 숙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교사와 성도들이 이러한 헌신에 감사하며 매주일 저녁 식사 교제 시간을 준비하여 배고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매주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느끼며, 서울교회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청년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세대를 위해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훈련을 통해 매주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느끼며, 서울교회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청년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세대를 위해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훈련을 통해 매주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느끼며, 서울교회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청년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세대를 위해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만 달란트와 각서 한 장



정병무 은퇴장로
(6교구)

십여 년 전 분당선 지하철 안 한 모퉁이에서 저와 아내는 면발치로 그 분을 알아보고 눈치 채지 않게 가려든 방향에서 돌아서서 다른 열차 칸으로 옮겨 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와 얼굴을 마주치면 당황하고 민망해 할 것 같아 순간적 판단으로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약 20여 년 전 저에게 이사 갈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시어 나는 은행을 통하여 제 명의로 적금대출을 받아 드렸습니다. 자기 집이 처분 되는대로 곧 갚겠다고 약속도 받았지만 그 후 그 집 사님의 사정이 풀리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급기야 은행 부채의 원리금 몇 천 만원을

고스란히 제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다가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탐감하여 주었더니(마 18:27)”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만 달란트를 탐감 해 준 주인(주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을 추슬러 그 흥내라도 내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와 의논하여 그것을 탐감해 주는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전달해 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분은 글썽이는 눈물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시었습니다.

한 장의 각서가 저와 아내를 숨겨 주었고 또 이타(利他)적 선행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체험담이지만 저의 존재는 잊어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향기를 뿜어내는 편지가 되기를 소원하며 삼가 이 글을 올려 봅니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봄학기

교육위원회는 문화나눔, 말씀에 기반한 찬양문화의 형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고자 열린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수강자들을 모집한다.

- 학기운영 : 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 23년도 봄학기 : 4. 15(토)-6. 18 (주일), 10주
- 운영비 : 각 클래스당 월 15,000원 (3개월 : 45,000)
- 문의 및 신청 : 남재은 집사 (010-9189-8019)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클래식 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505호	장윤식 안수집사
통기타	주일	13:50	10주	505호	박민서 안수집사
	토요일	10:00	10주	505호	김상운 선생
베이스 기타	토요일	11:30	10주	505호	
드럼	토요일	13:00	10주	101호	한도연 선생



지난주 우리교회는...



지난 주일 찬양예배는 교구위원회(위원장:서은석 장로)의 헌신예배로 드려졌다. 교회와 교구별 성도들의 연계적인 교구위원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였다. 어려운 가운데 봉사하시는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위, 왼쪽)

3월 30일(목), 살롬경로대학(부장:김광대 장로)는 봄을 맞아 강화도로 야외 수업을 떠났다. 강화도에 소재한 기독교 역사기념관을 견학하며 한국기독교의 역사를 다시금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다.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하단)

강화도로 떠난 살롬경로대학 야외 수업



계속되는 70인전도대 노방전도



70인 전도대는 지난 3월 25일 토요일노방전도와 29일 수요일노방전도를 이삭선교회와 권사회와 함께 31명이 진행하였다.

한티공원 주변 보도블럭 공사로 애쓰시는 분들에게 생수와 물티슈를 전달하였다. 새단장되어지는 교회 주변을 전도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감사기도와 노방전도 참여를 부탁드린다.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 3일(월) - 4월 8일(토) 오전 5시, 설교 : 손달익 위임목사
4월 7일(금) 오후 8시, 본당
'비아돌로사를 따라 걷는 성(聖) 금요일 기도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다. 또한 4월 3일(월)-4월 8일(토)까지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설교는 손달익 위임목사가 담당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聖) 금요일'(4월 7일)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하며 금식을 한다. 주일에는 금식헌금을 봉헌하고, 이는 연약한 이웃을 위한 구제의 헌금으로 사용된다. 오후 8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 (비아돌로사)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찬

양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든 다락방이 연합으로 함께 모여 드리며, 이번 주간 다락방 모임을 대신한다.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킨다. 새벽 5시 '부활절 새벽예배'가 있으며 시온찬양대가 찬양을, 양정호 협동목사가 설교를 담당한다.

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성(聖) 금요일 금식헌금을 드린다. 부활주일 찬양예배 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란다.

날짜	3일(월)	4일(화)	5일(수)	6일(목)	7일(금)	8일(토)
주력교구	2, 4, 9	3, 5, 8	1, 6, 7	2, 4, 9	3, 5, 8	1, 6, 7
예배인도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서울강남노회 제72회 정기노회

서울강남노회 제72회 정기노회가 4월4일(화) 오전 9시 소망교회에서 열린다. 우리 교회는 목사회원으로 손달익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목사가, 장로 총대로 이계홍 최형열 차영도 서은석 김승록 이민호 장로가 참석한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4월3일	월	삼상 13-15		시 66-73	
4월4일	화	삼상 16-17		시 74-80	
4월5일	수	삼상 18-20		시 81-91	
4월6일	목	삼상 21-24		시 92-102	
4월7일	금	삼상 25-28		시 103-107	
4월8일	토	삼상 29-31		시 108-118	
4월9일	주일	삼하 1-3		시 119	

주일 2부 예배 봉헌부 봉사자 모집

주일 2부 예배 봉헌부에서 함께 봉사할 봉사자를 찾는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 기다린다.

문의 : 박정자 권사 : 010-8307-4088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동정



- 독주회 : 7교구 전지희 선생 (주일 1부예배 오르가니스트)
5월 3일(수) 12시 20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



- 개인전 : 7교구 전우진 성도 (주일 2부예배 오르가니스트 차추연 권사의 아들)
4월 7일(금)-9일(주일) 명동 눈스퀘어 4층 아페리온 살롱

-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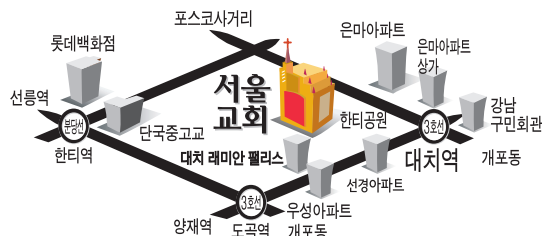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참여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증인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 서울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되게 섬기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신앙공동체로 부흥하게 하소서.
-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분단의 시대를 넘어 복음화된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이끄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 홀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금요일 기도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